

2021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조사의 목적

- 관내 제조업체의 2021년 2/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은 물론 정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2. 조사 기간

- 2021. 2. 26(금) ~ 3. 11(목)

3. 조사 대상

- 관내 제조업체 (60개 표본업체)

4. 조사 항목

- 전반적인 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전망 및 애로 요인
- 영업이익, 생산량, 설비투자 등 기업 실적 및 전망
- 대외여건들의 전개 방향 및 한국경기의 전망 등

5.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작성 방법

- 조사대상 분기별로 응답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 및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호전, 불변 또는 악화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표시된 업체가 악화로 표시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미만일 때는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호전표시업체수} - \text{악화표시업체수}}{\text{총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BSI=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전분기수준=100

I . 2021년 2/4분기 기업 경기 전망

1. 기업경기전망(BSI) 지수

- 최근 관내(순천, 구례, 보성) 표본 제조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기업경기 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100'으로 전망돼 전분기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소 호전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올해 2/4분기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2%였으며,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36%, 악화될 것이라는 업체는 3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1/4분기 실적 지수는 '56'로 나타나, 경기 전망 지수인 '97'에 비해 다소 낮게 조사되었음.

구 분	2018년				2019				2020년				2021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전망치	90	111	103	97	93	90	83	79	95	73	58	48	97	100
실적치	74	97	90	70	87	80	57	114	41	67	55	66	56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임.
- BSI세부 항목별로 보면 매출(112), 영업이익(108), 설비투자(120), 자금조달여건(80) 등 대부분 항목에서 전분기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2. 올해 귀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는?(모두 선택)

- 올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중 34.1%가 '환율변동성'을 차지. '신흥국 경기침체'와 '유가상승'(각 19.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응답의 12.2%가 '보호무역주의'라고 답함. '기타' 응답(14.6%)의 약 66%는 해외지역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꼽음.

(%)

구 분	보호무역주의	신흥국 경기침체	유가상승	환율변동성	북한 이슈	기타
대외 리스크	12.2	19.5	19.5	34.1	0.0	14.6

3. 올해 귀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 리스크는?(모두 선택)

- 올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 리스크로는 '코로나 재유행'이 전체 응답의 43.5%를 차지. '금리인상 가능성'과 '반기업 정서'가 각 15.2%의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가계부채 증가'가 13.0%로 뒤를 이었음. 전체 응답의 6.5%가 '반기업 정서'를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예상하였으며, '기타'(6.5%) 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 기업 규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을 대내 리스크로 꼽음.

(%)

구 분	코로나 재유행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기업부담법안 입법	반기업 정서	기타
대내 리스크	43.5	15.2	13.0	15.2	6.5	6.5

4. 코로나19가 경제·산업·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 19가 '국내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욱 증가시켰다는 응답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였으며, 4%는 '변화 없음', 20%는 '속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선진국과 우리 기업간 기술격차'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70.8%가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격차 심화'가 응답의 16.7%, '격차 완화'가 응답의 12.5%를 차지함. '신흥국의 기술 추격속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속도 증가'가 응답의 54.2%, '변화 없음'이 45.8%를 차지하였음. '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83.3%의 업체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6.7%에 그침.

(%)

구 분	속도 증가 및 격차 심화	변화 없음	속도 감소 및 격차 완화
국내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속도	76.0	4.0	20.0
선진국과 우리기업간 기술격차	16.7	70.8	12.5
신흥국의 기술 추격속도	54.2	45.8	0.0
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	83.3	16.7	0.0

5. 작년 한해 실적(영업이익)이 제작년(코로나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습니까?

- 작년의 영업이익 실적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줄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44.0%에 달했으며, 36.0%의 업체는 '비슷한 수준', 20.0%의 업체는 '늘었다'고 답함.

(%)

구 분	늘었음	줄었음	비슷한 수준
실적(영업이익)	20.0	44.0	36.0

5-1. (9 번에서 ② 응답한 기업 대상) 감소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9번에서 작년 영업이익 실적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한 업체 중 81.8%는 감소폭이 0 ~ -50% 였으며, 감소폭이 '-51% ~ -100%'와 '-101%이상'인 업체는 각각 9.1%를 차지함.

(%)

구 분	0% ~ -50%	-51% ~ -100%	-101% 이상
감소폭	81.8	9.1	9.1

5-1. (9 번에서 ② 응답한 기업 대상) 코로나 재유행이 없음을 가정할 때,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9번에서 작년 영업이익 실적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한 업체 중 53.8%의 업체가 '올해 안'으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38.5%의 업체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이라고 응답함. '상반기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7.7%를 차지.

(%)

구 분	상반기 중	올해 안	내년 이후에나 가능
회복 시점	7.7	53.8	38.5

II. 최근 BSI 추이

